

출생아 감소율 두 자릿수 '인구 절벽'...지방 소멸 우려 심화

●2024년 사회지표·통계로 본광주시 인구 추이

총인구수 1만2천여명 급감...2015년부터 지속 감소세
출생아 17.1% '뚝'...사망자수 4년째 출생아수 앞질러
65세 이상 16.5%...1인 가구 36.5% 전국 평균보다 높아

광주의 인구 감소세가 9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출생아 수도 여전히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하면서 지방 소멸 우려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감소세가 이어질 경우 30년 뒤 광주지역 사망자 수는 출생아의 3배를 넘어설 것인 전망까지 나와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지역 내 4천906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조사 결과, 2023년 주민등록인구는 141만9천 237명으로 전년 대비 1만1천813명 줄었다. 전국 총인구 수가 전년보다 0.1% 증가한 반면, 광주시는 0.7% 감소했다. 광주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감



소율이 높았다. 실제 타지역 인구증감률은 ▲서울 -0.3% ▲대구 +0.6% ▲인천 +1.3% ▲대전 -0.1% ▲세종 +0.9% 등이다.

광주지역 2022년 인구(143만1천50명)가 전년 대비 1만561명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더러도 감소 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연도별 광주 인구 현황(주민등록인구 기준)은 2015년 147만2천여명(-0.2%), 2016년 146만9천여명(-0.1%), 2017년 146만4천여명(-0.3%), 2018년 145만9천여명(-0.2%), 2019년 145만6천여명(-0.1%), 2020년 145만명(-0.6%), 2021년 144만2천여명(-0.6%), 2022년 143만1천여명(-0.6%)으로 2020년부터 급감세가 뚜렷하다. 광주지역 인구 감소는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함께 타 지역 인구 유출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출생아 수의 경우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하며 감소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2023년 출생아 수는 6천172명으로 전년보다 17.1%(1천274명)나 줄었다. 최근 5년 간 출생아 수는 2018년 9천10

5명, 2019년 8천364명, 2020년 7천318명, 2021년 7천956명, 2022년 7천446명 등으로 2021년 638명(8%) 증가를 제외하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반면, 2023년 사망자 수는 8천866명으로 출생아 수보다 2천694명 많았다. 2020년 출생 7천318명·사망 7천785명, 2021년 출생 7천956명·사망 7천981명, 2022년 출생 7천446명·사망 9천350명 등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은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 1천명 당 조출생률(1년간 출생아수를 총인구로 나눈 수치)은 전년 대비 0.9% 감소했으며 자연증가율은 조사망률이 조출생률보다 높은 1.9명을 기록했다. ▶2면에 계속 /번은진기자



한파 동반한 폭설 광주와 전남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되면서 많은 눈이 내린 7일 오전 광주 동구 필문대로에서 시민들이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오는 9일까지 광주·전남에 최고 2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재리기자

광주·전남 최대 7.1cm 많은 눈...낙상·교통사고 속출

일부 도로·여객선 통제...내일까지 20cm 이상 '눈폭탄' 예보

광주·전남지역에 최대 7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낙상과 교통사고 등 피해가 속출했다. ▶관련기사 6면 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눈이 내리기 시작한 전날부터 이날 정오까지 광주·전남 주요 지점 최심 적설량은 영광 7.1cm, 함평 6.3cm, 영암 6.2cm, 장흥 6.1

cm, 무안 5.9cm, 장성 5.4cm, 광주 5.2cm, 화순 5cm를 기록했다. 대설의 여파로 전남소방본부는 교통사고 5건·낙상사고 1건, 광주소방본부는 낙상사고 3건을 각각 조치했다. 이날 오전 10시15분께 영광의 한 도로에선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운전

자 한 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오전 4시23분께 화순 한 고가도로에선 40대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피하려다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아 다리를 다쳤다. 광주 동·남·북구 인도에서 중심을 잃고 쓰러진 보행자 3명도 경상을 입었다. 많은 눈과 강한 바람으로 산간 도로인 구례 노고단도로 14km, 화순 둔재 6.8

km, 화순 삭재 2.3km, 진도 두목재 3km 등은 차량 이동이 통제된 상태. 전남지역 53개 항로 80척 중 34개 항로 43척의 운항도 중단됐고 무등산과 내장산 등 국립공원 입산도 제한되고 있다. 강하고 많은 눈이 9일까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도로·여객선·입산 통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9일까지 광주·전남 예상 적설량은 5

-15cm다. 광주 일부 지역과 전남 북부를 중심으로 20cm 이상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 기간 광주·전남 일부 지역엔 5-15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8일 정오 이후부터 광주·전남 다수 지역에서 시간당 3-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대설특보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광주·전남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출몰"이라며 "많은 눈으로 인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재영기자

Today
'참사 치유' 전국서 기부 행렬 3면
신년 인터뷰...김영록 전남지사 5면
장갑수와 함께 걷는 길...역불산 14면

함양 2025년 새해인기
기부로 나눔 가치있게
광주 시민의 열매 : 053-107-999990 (광주은행)
전남 시민의 열매 : 301-4000-3000-01 (농협은행)
성금접수 계좌: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남남도공동모금회

광주매일신문 에너지 절약 실천 연중캠페인

겨울철 난방비 절약

지구를 살리는 에센스

당신의 에너지 센스!

가스요금 줄이고, 캐시백 챙기자!

참여대상: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

신청 및 절감기간: '24년 12월 ~ '25년 3월

구글, 네이버 검색: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https://k-gascashback.or.kr

절감률	요금절감액	캐시백	절감총액	예상요금
5%(20m³)	18,860원	1,000원	19,860원	358,600원
10%(40m³)	37,720원	4,000원	41,720원	336,740원
20%(80m³)	75,440원	16,000원	91,440원	287,020원

절감 예시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20°C 유지
한달 사용량 5.5%, 5,227원 절감

샤워시간 5분 줄이기
한달 사용량 7.2%, 6,826원 절감

에어캡(복벽이), 문풍지, 커튼 활용 틈새 열손실 ↓
한달 사용량 5.5%, 5,227원 절감

사용하지 않는 방 분배기 밸브 잠그기
한달 사용량 4.4%, 4,160원 절감

보일러 노후배관 쌓인 오염물질 제거
한달 사용량 5.0%, 4,760원 절감

노후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
한달 사용량 10.4%, 9,901원 절감

참여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KECN, KOMIPO,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동부발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새마을운동중앙회, 에너지시민연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협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광주광역시북구, 광주광역시동구